

# ‘서비스형 बैं킹(BaaS)’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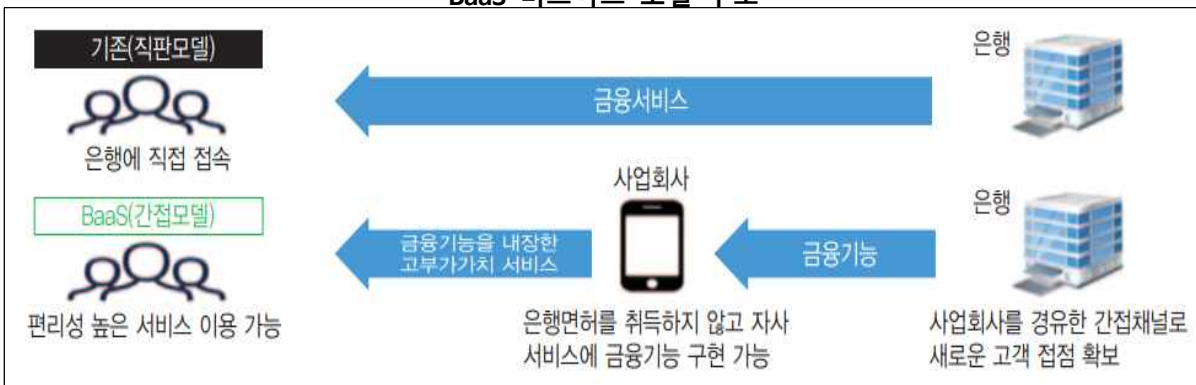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이재준 (june97@kdb.co.kr)

- ◆ 오픈뱅킹의 확산과 함께 ‘서비스형 बैं킹’(BaaS)이 부상하면서 해외에서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제휴를 통해 고객 앞 새로운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 중
- ◆ 국내에서도 BaaS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은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BaaS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

## □ 최근 금융의 개방화 물결에 따른 오픈뱅킹의 확산과 더불어 금융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‘서비스형 बैं킹(BaaS, Banking as a Service)’이 부상할 전망

- BaaS는 은행(금융 라이선스 소지자)이 서비스를 기능 단위로 모듈화하여 사업 회사(핀테크 등 비은행 기업)에게 온디맨드(On-Demand, 주문형) 형태로 제공하는 업태를 총칭
  - BaaS 기법은 사용자(금융소비자)가 평소 이용하는 사업회사 앱에 은행서비스를 삽입시켜 제공되는 방식\*으로, 은행은 새로운 고객과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 회사는 라이선스와 막대한 인적·물적 투자 없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
  - \* 은행 서비스가 사업회사의 브랜드 상품을 통해 제공(은행의 플랫폼이 아닌 사업회사의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)되기 때문에 BaaS를 흔히 ‘White Labeling Banking’이라고 부르기도 함

BaaS 비즈니스 모델 구조



자료 : 한국금융연구원(2021.4)

- BaaS는 은행의 자원을 외부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픈뱅킹과 유사하지만,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의 API\*를 개방하는 오픈뱅킹과 달리 은행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은행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  - \*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: 특정 프로그램의 데이터나 기능을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 규칙

BaaS와 오픈뱅킹 비교

구분	BaaS	오픈뱅킹
공통	은행이 제3자(핀테크 등 비은행 기업) 앞 API 제공	
접근범위	기능에 대한 접근(읽기·쓰기 권한)	데이터에 대한 접근(읽기 전용)
제3자의 활용	은행 서비스를 자사 상품과 통합	자사 상품에 은행 데이터를 활용

□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BaaS를 사용하는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- 미국의 그린닷(Green Dot)은 '15년 BaaS 모델 수립을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고객 경험을 제공
  - 차량 공유업체 우버 기사를 위한 '우버체크카드'를 출시, 기사가 당일에 보수를 수령하는 기능 제공(과거 일주일 정도 걸리던 보수 지불처리 과정 개선)
  - 주식 온라인거래 플랫폼인 스테시(STASH)와 제휴, 비자카드를 연계한 스테시 직불카드 발행(스테시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그린닷 계좌와 연계해 관리하고, 비자 네트워크에 포함된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 가능)
- 라이선스가 없는 애플과 소비자접근이 필요한 골드만삭스가 제휴하여 애플카드 출시(애플은 디자인과 브랜딩, 골드만삭스는 신용평가 등 후선 업무 담당)
  - \* 애플상표를 단 골드만삭스 신용카드는 2%의 캐시백 및 애플의 디지털월렛에 은행 계좌를 연계해 문자로 돈을 보내는 서비스 등 제공
- 독일의 솔라리스뱅크(Solaris Bank)는 '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기술 기업'을 지칭하며 계좌관리, 카드, 결제 등의 금융서비스 API를 기업에 제공
  - \* 솔라리스뱅크를 이용하여 은행업을 하고 있는 펜타(PENTA)는 전직원 비자카드 발급, 무료 비용 관리 등 기업 고객 앞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

□ 현재 국내의 BaaS 관련 금융서비스는 미미한 수준\*이나, 향후 BaaS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

- \* KB증권, 핀테크사가 필요로 하는 증권 인프라를 제공하는 BaaS를 도입, 핀테크사와 제휴 추진 중
  - '21.2월 KB증권은 핀테크 기업인 (주)웰스가이드의 앱에 KB증권의 Open-API 탑재 후 국내 최초 연금통합관리 앱인 '마이 머플러' 오픈(계좌개설부터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연금서비스 이용 가능)
- 소비자의 새로운 금융서비스·고객경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은행은 다양한 기업과 상생을 위한 제휴를 강화하고 핀테크 기업은 '은행화'하려는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
- 이에 따라, 국내 금융기관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\* 등에 따른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더불어 BaaS의 서비스화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 필요
  - \* 당초 '21.8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로 잠정 연기